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 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2호 현대불교  
2010년 5월 5일(음 3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일초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인등입니다

### 어떤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요

☞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사찰에서도 갖가지 등을 만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야 하는지요?

☞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월 팔일이 돼서 모두 등을 켜 놔줍니다. 애를 못 넣으니 애를 넣게 해 달라고 젊은 보살들이 등을 켜 놓기도 하고 그렇게 수천 명이 등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등불은 등불이 되되 등불이 하나도 없구나."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구석 끄트머리에 가난한 어느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어려워져서, 남들은 눈에 빠진 버선을 벗고 새 양말을 신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어려워져 눈에 빠져서 쫓은 그 시꺼먼 거를 벗고는 맨발로 그냥 시뻘개 가지고 등도 살 돈이 없어서 초 하나만 사 들고 온 거를 종이짜리로 둘러놓고는 글썽 거다가 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스님이 "허허! 아무리 비가 오고 뇌성벽력이 치고 아무리 눈보라가 진다 하더라도 저 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인등을 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즉 내 마음의 인등입니다.

여러분이 촛불 켜는 게 불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인등을 켜야 됩니다. '인등'이라는 것이 무슨 요만한 그릇에다가 꼬리표나 해서 불이고 불 켜는 게 인등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일초도 떠나지 않고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인등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불을 켜고 진실하게 스승을 따르고, 진실하게 자기 주인공을 믿음으로써 일체제불, 일체 보살이, 천백억 화신이다 한 자리에 한꺼번에 잠나에 들고 나신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그것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거니와 남을 업신여기거나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아픈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굶주린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못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도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전자에 끌렸을 때의 내 모습'이구나.' 아픈 사람을 봤을 때는 '내 아픔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픈 남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주인공에다 딱 집어서 '아, 내 주인공하고 틀이 아니니까, 주인공만이 재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차차차 차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촛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



그림 · 최주현

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말을 좋게 하니까 향기가 나고 마음의 향을 피울 수가 있죠. 또 마음이 참 좋아서 웃으면 웃는 대로 그것이 바로 저 고평한 달밤에 달이 떠서 모든 데를 밝혀 주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자비의 웃음이란 애입니다. 그런데 낮에도 구름이 가리워서 해가 보이지 않으면, 저 해도 검은 구름이 끼면 해가 비치지 않듯이,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마음이 우울하게 검은 구름이 끼면 밝은 마음이 바깥으로도 풍기지 않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 내가 밝은 마음으로 모든 걸 돌려놓으면서 사는 이것이 그대로 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초파일에 다는 등도 그렇게 내 안의 불을 켜는 그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싶어요

☞ 스님, 물 흐르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지나간 일은 아쉬운 마음에 왜 그랬을까 싶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저런 생각들이 붙어 돌아가니 갑갑하거든요.

☞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빈 컵을 내려놔야. 그럼 이걸 지나간 겁니다. 과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 자리라 그랬습니다. 간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컵을 놔다. 앞으로 먹을 거를, 오는 거를 생각지 않죠. 내가 목말라야 먹을 생각이 나는 거지, 목도 안 마른데 미리 '아, 내가 목말라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진 자리예요. 본래! 누가 끊어라 말아라 할 게 없이 앞뒤가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지금 이 먹은 컵을 비켜 놓고선 생각이 없었는데 앞뒤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먹는다. 이것도 계획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대로 무심이요, 그대로 공이요, 그대로 했으나 먹은 사리가 없이 그대로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실상이예요.

그러니 아주 무겁고 어렵고 길게 생각을 늘어놓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

고 목마르면 물 먹고 내가 할 일 있으면 그냥 하고, 이러한 것이 그대로, 그대로 바로 무심의 행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되풀이해서 '이게 뭐가?' 하고, 오는 거 쪽쪽 '뭔가?' 하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뒤에 간 것도 뭔가, 앞에 올 것도 뭔가, 이게 보이는 것도 뭔가, 내가 물 먹는 것도 뭔가, 이려고 가다가는 십 년 걸려도 안되고 이십 년 걸려도 안됩니다. 물을 먹었으면 컵을 비켜 놓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목마르면 그냥 물 먹으면 됐지, 앞으로 목마를 테니까 물 먹게끔 '내가 목마르면 물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졌다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파도 조절을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도 방편이지만, 마음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했어도 모든 것이 실패지 않게 돼 있는 물질이니까, 모든 게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공했으니 그 주인공에 몰락 놔 버리고, 일인해 버리고 바로 믿고, 자기가 공하고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고 딱 놔 버려라 이겁니다. 다! 믿어라. 그리고 감사해야 이겁니다. 배고픈데 밥 먹었으면 감사해야죠. 자기 원소 자체에다가. 원소 자체가 있으면서도, 내공이 있으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내가 그러려니. 팔자 운명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하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팔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팔자가 있는 것이고 팔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팔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면 걸리지, 삼살방이 들었지, 이러면 삼살방이 걸린 거죠. 자기 마음에서 걸렸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사방이 특렷했는데 그건 왜 특렷했다고 하느냐? 내 마음이라는 원소 자체는 체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마음이 올라가 보세요. 걸릴 게 뭐 있나? 한 번 올려 보세요, 마음을. 동쪽으로 가도 걸리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걸리지 않고 남북으로 가도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도 걸리지 않고, 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 도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산도 물도 그렇게 내 주먹 안에 다 들어 있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26면으로 계속

## 47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본원은 수기요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 합니다



### 기치유는...

1. 항상 피로하고 금방 지치고 피곤해 진다
2.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3. 차고 시리다. 어룡이 풀려 붙어 있는 것 같다.
4. 땀속까지 시리다.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다.
5. 땀이 어렵고 비뚤어 떨어지지 않는다.
6.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온다
7. 명치나 가슴에 뭐가 걸린 것 같다.
8. 장차로 기가 떨리는 것 같다.
9. 소화가 안된다.
10. 여기저기 아픈곳이 많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지 않는 증상들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몸이 아픈데 정신활동, 근육활동, 소화작용, 생체 리듬에 필요한 기운을 아픈곳에 사용하지 못해서 기운이 없고 힘이드는 것이다. 기치유는 그때때 몸이 아픈곳에 치유에너지(기운)를 넣어주면 치유활동이 활발해져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서울: 양성반 47기 개강

- ◆ 수련일자 : 2010년 5월 12일(수요일)
- ◆ 시간 : 오후 7:00~9:20(주1회 11주과정)
- ◆ 대상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우: 기치유 수련반 수시모집 문의: 053-652-2202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안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구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엘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총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함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